

兒童의 社會的 認知에서 歸因過程의 發達(Ⅱ): 段階模型의 檢證

金 正 午

서울大學校

金 泰 蓮

梨花女子大學校

歸因이 解釋, 比較 및 選擇의 세 段階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段階模型(stage model)을 제기하고 그 豫言들을 검증하였다. 學齡前, 國民學校 1年 또는 3年生에게 가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두 主人公 중 더 강한 內的 原因에 의해 행동한 主人公을 택하도록 하였다. 세 實驗의 結果들은 解釋段階에는 報償解釋과 命令의 正當化가, 比較段階에는 周邊人物要因들이 각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다. 특히 周邊人物과 命令의 正當化 變因간에 相互作用이 없었는데 이 결과는 이들이 각기 다른 단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學齡前兒童의 過半數 以上이 節減原理를 사용해 他人의 行動原因을 推定하고 있음이 드러났는데 이 결과는 자국이야기를 달리 사용했을 때도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實驗 I 과 II를 통해 學齡前兒童들이 比較段階에서 학년 아이의 判斷때문에 체계적 결감효과를 보이지 못함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歸因(attribution)은 행동의 원인에 대한 知覺 또는 推定을 지칭한다(Kelley & Michela, 1980). 사람은 자신 또는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찾고자 하며, 행동을 그 원인에 비추어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가 나중의 행동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歸因의 諸 問題 중 發達心理學者들이 특히 關心을 가져온 것은 여러 類型의 因果 模式(causal schemata)의 發達, 節減原理(discounting principle)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시기, 原因推定에 아동들이 사용하는 情報등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Piaget가 주로 物理的 刺激을 사용해서 밝힌 兒童의 認知發達 段階와 유사한 경로를 밟아 兒童이 자신 또는 타인의 思考, 感情, 性格을 推定하는 社會的 認知(social cognition)도 발달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因果模式는 둘 이상의 原因들이 複合되어 특

정한 결과 또는 행동을 초래한다는 概念體系인데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Kelley, 1972).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두 가능한 原因 중 한 原因이 어떤 效果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믿거나(多充分 因果模式), 두 原因 모두 必要하다고 믿는다(多必要 因果模式). 節減原理란 어떤 행동에 두 可能한 原因들이 있을 때 그 하나의 效果를 약화시키고 다른 原因을 받아들임을 뜻한다(Kelley, 1972). 예를 들어, 個人이 어떤 상황에서 으레 기대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가 狀況의 壓力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의 行動이 內的 動機나 性格 특성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이유는 절감된다. 보통 어떤 行動을 하도록 하는 報償, 義務, 指示등의 外的 原因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行動에 미치는 興味, 內的 動機, 性格 등 內的 原因의 效果가 절감된다.

Smith(1975)는 유치원, 國民學校 2學年, 4學年 및 大學生들에게 이야기 쌍들을 들려주었다. 한 쌍의 이야기는 두 주인공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나 한 주인공은 스스로 택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반면, 다른 주인

본 研究는 1979年度 產學協同研究費를 지급받아 수행한 兒童의 『社會的 認知發達에 관한 調查 및 實驗研究』의 一部分이다. 이 實驗에 협조한 김아영, 장희숙, 최영숙, 한양순, 손영숙, 김경은, 임원숙, 최원용, 제 학생께 감사드린다. 본 論文을 읽고 평을 해주신 車載浩教授께 감사드린다.

공은 부모의 지시를 받든가 보상을 약속받고 그 행동을 한다. 둘 중에서 누가 그 행동을 정말로 더 원해서 했느냐는 질문(內的原因推定)에 대해 유치원 아동들은 外的原因이 있는 주인공이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어했다고 판단하거나 두 주인공 중 한 사람을 뚜렷한 이유없이 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4학년생들은 스스로 행동한 주인공을 일관성있게 택하는 반응경향을 드러내었다. 이 결과는 유치원 아동들이 절감원리를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따라서 多充分 因果 세마가 발달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Karniol과 Ross(1976)는 Smith의 학령전 아동들이 자극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한 주인공을 택하는 반응, 즉 節減效果를 보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被驗兒童들이 자극 이야기의 내용을 완전히 理解하도록 한 다음 두 주인공 중 한 사람을 택하도록 하였다. Karniol과 Ross의 實驗Ⅰ에서는 學齡前 兒童의 16%, 質問樣式을 바꾼 實驗Ⅱ에서는 學齡前 兒童의 40%가 節減效果를 보였다. 國民學校 1年生은 그 半數가 節減效果를 보였다. Karniol과 Ross는 學齡前 兒童들 중 父母의 指示나 報償때문에 行動한 主人公이 스스로 行動한 主人公보다 더 內的 動機가 强하다고 判斷한 兒童들은 節減原理보다는 添加原理(additive principle)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즉, 이 원리에 의하면, 父母의 命令 또는 報償이 主人公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유인(incentive)을 添加한 것으로 해석된다. Karniol과 Ross(1979)의 한 후속 연구에서 學齡前 兒童의 약 60%가 添加原理를 사용해서 內的 原因推定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成人을 대상으로 한 실험들(예: 車載浩, 1971)에서도 학령전 아동의 歸因推定과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즉 成人들은 外的 原因들이 主人公의 性向, 態度등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간주하고, 外的 原因이 있는 主人公이 없는 主人公보다 어떤 행동에 內的으로 더 動機化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절감효과의 逆인테 車載浩는 이를 同化效果(the assimilation effect)라고 불렀다. 이 효과는 個人的 特性을 行動과 共變하는 要因들, 즉 外的 原因에 同化시킨데

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添加效果보다 同化效果라는 用語를 사용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過半數의 學齡前 兒童들이 行動의 內的 原因推定에서 節減原理를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들과는 다른 패러다임(paradigm)의 연구들은 學齡前 兒童들이 自己行動의 原因을 節減原理를 사용하여 推定하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이 系統의 研究結果에 대한 綜合은 Lepper & Green, 1978을 볼 것). 즉 아동들에게 그들이 興味있어 하는 行動(예: 그림 그리기)을 하면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活動을 하도록 하면 이 아동들은 報償을 약속받지 못하고 그 活動을 한 아동들에 비해서 自由놀이 시간에 그 活動을 덜 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결과는 學齡前 兒童들은 자기의 行動에 外的 原因이 주어질 때 內的 原因 즉 興味나 動機의 效果를 節減시켜 自身の 行動이 外的 原因에 起因했다고 推定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前記한 패러다임에서 뿐만 아니라, 學齡前 兒童에게 어떤 個體의 行動原因이 個體 自身 또는 狀況 때문인지를 推定하도록 要求하는 課題에서 자극이야기의 內容을 具體的으로 提示할 경우 原因推定에서 節減效果를 보인다는 結果도 보고되었다(이 結果들에 대한 論議는 金正午와 朴永信, 1980을 참조할 것). 요컨대 學齡前 兒童들이 節減原理를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리싸고 갈등적 결과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金正午와 朴永信(1980)은 이러한 갈등적 結果의 한 이유로 절감효과는 관찰한 패러다임과 그렇지 못한 패러다임이 각기 다른 變因들을 조작했음을 주목하였다. 전자의 패러다임에서는 報償의 豫想有無와 그 種類가 체계적으로 操作된 반면 후자의 패러다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처럼 결정적인 변인들이 조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Smith 류의 실험사태에서 학령전 아동들의 歸因力量(attributional capacity)이 탐지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학령전 아동들이 절감원리를 체계적으로 사용할 만한 역량이 없다면, 절감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던 실험사태에서 報償의 豫想有無

와 그 種類 變因들이 아무런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것이다. 金正午와 朴永信은 節減效果를 보인 研究들(예 : Dollinger & Thelen, 1978; Lepper, Greene & Nisbett, 1973)이 操作한 報償의 豫想有無와 種類를 이야기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들의 실험에서 주인공은 물질적 또는 言語的 報償을 約束받고 行動하거나 이런 報償을 전혀 豫想하지 못하고 행동한 후 言語 또는 物質的 報償을 받는다. 이 實驗에서 밝혀진 結果로서, 學齡前 兒童들은 主人公이 돈과 같은 物質報償을 받았을 경우 그것이 豫想된 條件보다 豫想外 條件에서 內的 原因推定을 더 많이 하였다. 그들은 또한 豫想된 物質報償을 받은 主人公보다 豫想된 言語報償을 받은 主人公이 어떤 行動에 內的으로 더 動機化되었다고 推定하였다. 특히 學齡前 兒童의 10%만이 報償의 豫想有無에 相關없이 無選으로 節減原理를 사용함을 시사하는 非體系의 節減效果를 보였다.

金正午와 朴永信의 實驗結果는 學齡前 兒童들이 報償의 豫想有無와 種類에 관한 情報를 處理하여 原因推定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節減原理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金正午와 朴永信의 實驗事態는 報償의 豫想有無와 種類變因들의 操作때문에 Smith나 Karniol과 Ross의 實驗事態와는 다소 다르게 구성되었다. 前者의 研究에서는 한 主人公의 행동과 예상된 또는 예상의 보상이 제시되어 內外的 原因推定이 要求된 반면, 後者の 實驗들에서는 두 主人公이 제시되고 內的 動機가 더 강한 아이의 선택이 要求되었다. 따라서 두 主人公이 比較되는 課題에서 學齡前 兒童의 歸因過程이 再次 究明되어야 한다. 金正午와 朴永信은 또한 Karniol과 Ross(1976)의 主張을 발전시켜 歸因 判斷에 있어서 節減原理가 使用되기 前, 즉 刺戟 이야기의 내용이 解釋되는 단계의 重要性을 주장하였다. 學齡前 兒童들이 報償의 豫想有無에 따라 行動의 理由를 外的 또는 內的 原因으로 해석하여 절감원리를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실험에 의해 지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主張 역시 재차 검증될 필요가 있다. 그 한 이유는 解釋段階와는 다른 段階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들이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歸因이 여러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結果나 主張을 살펴보자. Karniol과 Ross(1976)의 實驗 結果중 主人公이 父 또는 母의 命令을 받고 행동하는 條件과 그들로부터 報償을 約束받고 행동한 條件을 비교할 때 後者에서 學齡前 兒童들은 內的 原因의 效果를 잘 節減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命令이 外的 原因으로 용이하게 해석되는 반면 報償의 경우 그것이 外的 原因으로 해석되는 것이 다른 要因 때문에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報償이 “착한”행동에 대해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면 “착하다”는 것이 행동하는 主人公의 內的 原因인 性格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론될 것이다. 金正午와 朴永信의 결과와 Karniol과 Ross의 결과들은 모두 歸因에서 해석단계의 重要性을 시사한다고 보겠다.

解釋 段階에서 主人公의 行動이 外的 또는 內的 原因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理解되었을지라도 두 主人公을 比較하는 단계에서 問題가 일어날 수 있다. 命令이 사용된 과제와 해석 단계에서 한 주인공의 行動을 內的 原因, 外的 原因으로, 다른 主人公의 行動은 內的 原因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하자. 이 두 主人公을 비교할 때 “父母의 말에 순종하는 아이는 착한 아이”라는 固定觀念이 적용되면 前者 主人公의 경우 外的 原因이 內的 原因으로 再解釋될 수 있다. 이때 스스로 행동한 주인공 즉 內的 原因으로 이해된 主人公 보다 父母가 시켜서 행동한 主人公, 즉 內的原因과 外的 原因으로 이해된 主人公이 어떤 행동에 더 강한 內的原因이 있다고 판단된다.

Kelley(1973)은 “父母 말을 듣고, 償을 받는 아이는 착한 아이”라는 固定觀念은 單純 因果세마라고 주장한다. 두 主人公을 비교하여 內的 原因을 推定할 때 單純 因果세마를 적용하게 되면 節減效果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가능성은 次後에 설명키로 하겠다. 再解釋에 의해서든, 單純 因果세마에 依해서든 두 主人公을 比較할 때 “누가 더 착한 아이인가?”라는 比較가 內的 原因推定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解釋段階에서 內·外的 原因의 파

악의 용이성과 比較段階에서 節減原理의 적용에 영향을 주는 變因들과 그 效果를 밝히고자 하였다. 歸因過程에 대한 段階模型(stage model)은 행동의 원인이 최소한 세 단계를 거쳐 추정된다고 가정한다. 첫 단계는 해석의 단계로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관한 내용을 기존 세마를 사용해서 파악하고 이해하거나 정보가 빈약할 때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內·外的 原因으로 해석하는 단계이다. 둘째가 比較段階인데, 앞단계에서 推定된 原因들로 두 主人公을 비교하여, 外的 原因이 있는 主人公의 경우 그 內的 原因의 效果를 절감시키고, 外的 原因이 없는 主人公은 內的 原因의 效果를 그대로 둔다. 이 比較段階에서 두 主人公을 分明히 대조하기 爲해 한 主人公은 주로 外的 原因에 의해, 다른 主人公은 內的 原因에 의해 같은 행동을 했다는 해석이 이루어진다고 가정된다. 세번째의 選擇段階에서는 比較段階의 結果를 바탕으로 指示에 따라 한 主人公을 택한다. 이때 被驗者의 주의산만 또는 질문내용의 이해상의 부족의때문에 比較段階의 結果와는 다른 主人公이 선택되는 수가 있다. 이는 특히 學齡前 兒童에서 현저한 것으로 예상된다.

段階模型에서 도출되는 假說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단계에 영향을 주는 變因들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이다. Sternberg(1969)의 加算의 要因法(additive factor method)에 의하면, 두 변인들이 상호작용 효과를 낸다면, 이들은 동일한 精神過程 즉 단계(mental stage)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된다. 반면 한 실험에서 두 변인들이 상호작용 효과를 보인다면 그들은 동일한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계모형에 따르면, 歸因 狀況에서 해석단계와 비교단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를 것이다. 둘째, 해석단계에서 각 主人公의 행동의 원인이 파악되더라도 比較段階에서 他要因이 작용하면 체계적인 節減效果를 관찰할 수 없게 된다. 비교단계에서 절감원리가 적용되어 재해석될 때 性格判斷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세 實驗은 이 假說들과 또한 관련된 問題를 검토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實 驗 I

實驗 I 은 比較段階에 영향을 주는 한 變因의 效果를 검증코자 하였다. Kelley(1973)에 의하면 “부모의 말을 듣고, 상을 받는 아이는 착한 아이”라는 單純 因果세마를 적용할 때, 아동들은 節減效果를 보이지 못한다. 즉 이 세마를 사용한 兒童들은 多充分 因果세마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갖고 있다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의 예비실험에서 나온 자유응답을 보면, 節減效果를 보이지 못한 學齡前 兒童들, 즉 償을 받거나 시켜서 행동한 主人公이 內的으로 더 動機化되었다고 판단한 被驗者들도 스스로 행동한 主人公이 內的 原因에 의해 행동했다고 判斷하고 있었다. 이 結果는 節減效果가 나오지 않은 것은 單純 因果세마가 사용된 때문이라기보다는 比較段階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에서 비롯됨을 시사한다.

比較段階에서 “착한 아이”의 判斷이 영향을 줄 가능성을 검증하는 한 방법은 主人公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人物 즉 주변인물을 조작하는 것이다. 父 또는 母가 시켜서 X라는 행동을 한 主人公과 스스로 그 행동을 한 主人公을 비교하는 조건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친구가 시켜서 X행동을 한 主人公과 스스로 그 행동을 한 主人公을 비교하는 조건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전자의 조건보다 후자에서 節減效果가 더 많이 관찰될 것이다. 그 까닭은 後者의 條件에서는 前者의 條件에 비해 “착한 아이”라는 性格判斷이 比較段階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段階模型을 검증하는 것 以外에, 實驗 I 은 같은 行動을 한 두 主人公의 內的 原因을 推定하는 課題에서 過半數의 學齡前 兒童들이 節減效果를 보이지 않았다는 先行研究들을 재검토하려는 目的도 갖고 있다. 報償대신 父母나 親舊가 主人公에게 어떤 행동을 시키는 內容을 포함하고, 이야기의 구조(format)를 단순하게 하여 해석단계에서 內·外的 原因이 용이하게 파악되도록 하였다. 이는 兒童에게 原因推定을 要求하는 課題에서 쓰이는 이야기들이 主人公의 性, 이름,

行動內容에서 다를지라도 그 배후의【構造】를 같게 하여 가능하였다. 이러한 條件에서 아동들은 같은 命題構造로 여러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해석단계의 情報處理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比較段階의 情報處理에 必要한 容量을 많이 할당할 수 있을 것이다.

方 法

被驗者. 實驗Ⅰ에는 서울 市內 東大門區에 위치한 C유치원생 24명, C國民學校 1年生 24명 및 3年生 24명 총 72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의 나이는 유치원생이 5~6세, 國民學校 1年生이 7~8, 3年生이 9~10세이었다. 각 年齡 수준에서 男·女의 數는 같았다. 유치원과 국민학교가 위치한 地域을 고려해 보면 이 대상자들의 社會經濟의 水準은 모두 中下이었다.

刺戟材料. 각 被驗者에게 여덟 쌍의 이야기들이 提示되었다. 이야기들은 모두 (1) 한 主人公이 X를 할까, Y를 할까 망설이고 있는 內容과 그 다음 (2) X 또는 Y를 택해서 하는 內容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甲 主人公의 경우이고, 乙 또는 丙 主人公의 경우는 각기 父母 또는 어른이나 친구들이 시켜서 甲과 같은 行爲를 하는 內容이 (1)과 (2)사이에 삽입되었다. 이처럼 한 이야기를 이루는 구조는 매우 단순하며, 主人公이나 구체적인 行爲내용들만이 다를 뿐이다.

여덟 쌍의 이야기는 X와 Y간의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人形 갖고 놀기—소꿉장난, (2) 그림 맞추기—장난감 갖고 놀기, (3) 자전거 타기—공차기, (4) 그네 타기—미끄럼 타기, (5) 딱지 따먹기—술래잡기 (6) 줄넘기—숨박꼭질, (7) 짜장면 먹기—라면 먹기 및 (8) 사과 먹기—फल먹기.

前記한 行爲 內容을 주변인물의 조건들에 따라 자극이야기를 구성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甲 主人公) 명구는 집에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구는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乙 主人公) 병우는 집에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병우에게 짜장면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우는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丙 主人公) 철환이는 집에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환이의 친구가 짜장면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철환이는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刺戟이야기들을 두 目錄으로 구성하였다. 目錄Ⅰ은 (1)~(4)의 짝지워진 두 行爲內容 중 하나씩을 甲과 丙 主人公이 선택해서 行爲하는 이야기로, 나머지 (5)~(8)의 內容에서는 甲과 乙 主人公이 行爲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目錄Ⅱ의 경우 (1)~(4)의 內容을 甲과 乙 主人公이, (5)~(8)은 甲과 丙 主人公이 각기 택해서 行爲한 이야기로 구성된다.

각 目錄에서 자극이야기의 반은 主人公이 남자, 그 나머지는 여자이며 甲이 남자면 乙, 丙도 남자가 되게 하였다. 각 이야기들은 3~4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 장의 그림들과(甲 主人公의 경우는 두 장)함께 제시되었다. 그림으로 甲, 乙, 및 丙 主人公을 구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옷, 얼굴 모양들을 각기 다르도록 하였다. 예비 연구결과 學齡前 兒童들은 主人公의 이름을 둘 정도 기억하기도 힘들어해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림들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節次. 被驗 兒童들은 미리 무선적으로 배정된 번호에 따라서 4명의 實驗者에게 할당되었다. 각 目錄 條件의 被驗者數를 같게 하기 위해, 實驗者들은 2명이 한 組가 되어서 한 實驗者가 目錄Ⅰ을 가지고 實驗하면, 다른 實驗者는 目錄Ⅱ를 가지고 실험하며, 이것이 끝나면 다시 무선으로 결정하여 다른 두 兒童들을 실험하였다. 8쌍의 이야기들은 각 被驗兒童에게 提示되기 前 뒤섞어 무선 제시되었다. 한 쌍內에서 甲 또는 乙, 甲 또는 丙 主人公이 제시되는 순서도 無選의이도록 하였다.

實驗者는 被驗兒童의 이름, 나이를 묻은 다음 할 일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었다. 한 主人公에 관한 그림들을 일렬로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다음 다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 그림을 나열하면서 들려주었다. 두 이야기를 모두 제시한 후, 被驗 兒童에게 答금 들

은 이야기를 반복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이야기를 분명히 理解하고 있음이 확실하면 다음의 다섯 질문을 하였다. (1) 두 主人公중 어떤 행동을 누가 정말로 더 하고싶어 했는지(內的 原因推定), (2) (被驗 兒童이 택한 主人公) 그 행동을 한 理由가 무엇인지, (3) (選擇되지 않은 主人公을 가리키며) 그 행동을 한 理由가 무엇인지, (4) 두 사람 중 누가 더 착한 아이인지? (5) (착한 아이라고 판단된 主人公을 가리키며) 그 理由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被驗 兒童의 選擇과 理由들은 미리 준비된 反應紙에 기록하되, 自由應答의 경우 그들의 대답을 될 수 있는 한 그대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實驗은 교실을 빌려 수행되었는데, 한 被驗者당 15~20분이 소요되었다. 被驗者의 年齡이 많아 질수록 反應時間이나, 實驗進行이 다소 빨라졌다.

設計. 實驗 I 은 4(實驗者) × 3(年齡) × 2(目錄) × 2(주변인물)의 要因設計를 사용하였다. 實驗者 變因은 4명의 大學院生이 研究를 進行한 實驗者로 참여한데 비듯한다. 年齡 變因에는 5세(學齡前), 7세(國民學校 1年生) 및 9세(國民學校 3年生)의 세 水準이 포함되었다. 目錄變因은 被驗兒童 따라 각기 다른 目錄을 제시한데 기인한다. 주변인물 變因은 試行의 半에서는 甲 主人公을 친구가 시켜서 행동한 主人公(乙)과, 나머지는 부모나 선생님이 시켜서 행동한 主人公(丙)과 작지워 비교하게 한데 기인한다. 주변인물을 제외한 모든 變因들은 被驗者間變因들이었다.

反應 處理. 질문 1 즉 內的 原因推定에 대해 被驗兒童이 각 이야기 쌍에서 甲을 택하면 1점, 乙이나 丙을 택하면 0점을 주었다. 주변인물의 한 處置條件 당 4번 反復測定되었으므로 0~4점까지 被驗兒童의 점수가 분포된다. 착한 아이를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質問 3에 대한 反應에서,

甲을 택하면 1점, 乙이나 丙을 택하면 0점을 주었다. 질문 3에 대한 각 被驗者당 反應 點數도 0~4점까지 분포된다. 이 두 反應 點數들은 4(實驗者) × 3(年齡) × 2(目錄) × 2(주변인물)의 Split-plot 要因 變量分析으로 處理되었다. 質問 2, 3 및 5에 대한 自由應答은 모두 內容分析을 하였다.

結 果

實驗 I 의 結果들은 質問 順序에 따라 報告하기로 한다.

內的 原因推定. 表 1은 內的 原因推定에서 兒童들이 甲主人公을 선택한 反應을 年齡, 目錄 및 주변인물 別로 정리한 것이다. 變量分析 結果를 報告함에 있어 言及한 사항이 있다. 본 研究에서는 第一種誤差를 줄이기 위해 有意水準을 1%로 잡았다. 따라서 報告되는 主効果와 相互作用 效果는 모두 統計적으로 1%에서 有意하다.

分析 結果, 年齡이 유일한 主効果を 보였으며 $F(2, 48) = 10.49$, $MSe = 1.59$, 나머지 세 變因들은 그렇지 못했다: 實驗者, $F(3, 48) = .89$, $MSe = 1.59$; 目錄, $F(1, 48) = .84$, $MSe = 1.59$; 주변인물, $F(1, 48) = .17$, $MSe = .25$. 年齡이 증가할수록 被驗者가 甲 主人公을 선택하는 反應數가 증가하는데, 3年生의 경우 총점 4점에 평균 3.83이었다.

主要因들 간의 相互作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年齡 × 周邊人物, $F(2, 48) = 6.36$, $MSe = .25$, 年齡 × 實驗者 × 周邊人物, $F(6, 48) = 6.39$, $MSe = .25$, 年齡 × 目錄 × 周邊人物, $F(2, 48) = 11.36$, $MSe = .25$, 그리고 實驗者 × 年齡 × 目錄 × 周邊人物, $F(6, 48) = 4.36$, $MSe = .25$ 간에 각기 有意한 相互作用이 있었다.

年齡 × 周邊人物 간의 相互作用은 甲 主人公을 乙 또는 丙과 比較할 때 學齡前 兒童들은 比較

表 1. 年齡, 周邊人物 및 目錄別 甲主人公을 擇한 平均反應數(괄호안은 SD)

周 邊 人 物	目 錄 I			目 錄 II		
	5세	7세	9세	5세	7세	9세
어 른	1.92(1.72)	4 (0)	4 (0)	3.08(1.16)	2.83(1.47)	4 (0)
친 구	2.67(1.50)	3.58(.51)	3.41(.79)	3.08(1.24)	3.58(.90)	3.91(.29)

主人公이 어른보다 친구가 시켜서 행동을 한 경우 甲을 더 많이 택한 반면, 國民學校 3年生들은 그와 反對傾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 경향은 目錄에 따라 다소 다른데 年齡×周邊人物×目錄의 相互作用 效果는 바로 이때문이다.

實驗者 變因과 他 變因들 간의 三元 相互作用 效果는 部分的으로는 學齡前 兒童들에게 자극 이야기를 提示하고 질문을 明確히 던지며 아동이 分明히 理解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面에서 實驗者들이 다소 달랐던데 起因할지도 모른다.

節減 效果. Karniol과 Ross(1976)는 각 處置 條件을 두번씩 測定해서 甲 主人公을 두번 모두 선택하는 경우 體系的으로 節減原理를 사용하는 兒童으로, 1번 선택한 경우 非體系的으로 節減原理를 사용하는 兒童으로 分類하였다. 이들은 또한 甲 主人公을 두번 모두 택하지 않은 兒童들은 父母의 命令이나 報償이 主人公이 어떤 行動을 하도록 하는 誘引(incentive)을 첨가한 것으로 보이는 添加原理(additive iprinple)를 사용한 兒童들로 간주하였다. Karniol과 Ross의 結果와 比較하기 위해 各 條件에서 3점 이상을 받은, 즉 네번 중에서 세번 以上 甲 主人公을 擇한 被驗者들은 體系的의 節減效果를 보인 兒童들로 간주하였다. 2점이나 1점을 받은 被驗者들은 非體系的으로 內的 原因推定을 하는 兒童들로, 0점을 받은 被驗者들은 同化原理를 使用하는 兒童으로 區分하였다. 表 2는 年齡 및 周邊人物別로 세 類型의 兒童들을 整理한 것이다.

周邊人物이 어른인 경우 學齡前 兒童의 過半數인 67%가 體系的의 節減效果를 보이며, 國民學校 一年生の 83%, 3生の 100%가 그러하다. 親舊 條件의 경우에는 71%, 96% 그리고 92%의 分布를 보인다. 注目할 한 傾向은 周邊人物이 어른인 경우 學齡前 兒童과 國民學校 一年生 兒童들 중 同化原理를 使用하여 原因推定을 한 兒童들이 있는 反面, 親舊 條件에서는 그 比率이 작거나 全無하다는 사실이다.

“착한 兒童”의 判斷. 表 3은 甲을 착한 아이라고 判斷한 反應을 整理한 結果이다. 이 表에서 보면 被驗 兒童들은 그 年齡이 증가할 수록 甲 主人公을 더 착한 아동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이 드러났다, $F(2, 48)=5.99$, $MSe=3.82$. 甲과 比較되는 主人公이 어른이 시켜서 할 때 보다 친구가 시켜서 行動할 때 甲을 더 착한 아이로 지각하는 경향도 현저하다, $F(1, 48)=20.91$, $MSe=1.24$. 他 變因들의 主效果와 그 相互作用은 統計的으로 모두 有意하지 못하였다.

內的 原因推定과 “착한 아이” 판단간의 關係. 前記한 段階模型은 歸因의 比較段階에서 父母의 말을 따르는 主人公을 착한 아이로 판단할 경우 절감원리로 그 主人公의 內的 原因의 效果를 약화시켜 原因을 재해석하는 과정이 방해를 받고, 이에따라 內的 原因推定에서 節減效果가 관찰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被驗者가 甲 主人公을, 즉 자기 스스로 행동한 主人公이 착한 아이라고 판단하면 이러한 問題가 야기되지 않을

表 2. 年齡과 周邊人物別 세 類型의 兒童(%)

年 齡	어 른			친 구		
	體系的의節減	非體系的의節減	同 化	體系的의節減	非體系的의節減	同 化
5 (N=24)	66.7	12.5	20.8	70.8	20.8	8.3
7 (N=24)	83.3	12.5	4.2	95.8	4.2	—
9 (N=24)	100.0	—	—	91.7	8.3	—

表 3. 年齡, 周邊人物 및 目錄別 甲主人公을 착한아이로 知覺한 平均反應數(괄호안은 SD)

周邊人物	目 錄 I			目 錄 II		
	5세	7세	9세	5세	7세	9세
어 른	1.00(1.65)	2.50(1.88)	2.58(1.78)	1.58(1.73)	2.33(1.72)	2.58(1.68)
친 구	1.83(1.70)	2.83(1.47)	3.50(.80)	2.58(1.51)	3.25(1.36)	3.67(.89)

表 4. 年齡 및 周邊人物別 內的 原因推定點數와
“착한아이” 판단點數間的 相關係數

周邊人物	年 齡		
	5세	7세	9세
어른(df=22)	.62**	.37 [△]	.00
친구(df=22)	.61**	.45*	.47*

* $P < .05$, ** $P < .01$, 兩方檢證.

[△]—方檢證時 5%에서 유의.

것이다. 이 경우에는 內的 原因推定에서 甲의 선택과 착한 아이 판단에서 甲의 선택간에 正的 相關이 관찰될 것이다. 表 4는 이 예상을 검증하기 위해 두 판단간의 상관을 낸 것을 年齡과 周邊人物別로 정리한 것이다. 表 4를 보면 學齡前 兒童 즉 5세 集團에서 두 選擇反應간에 매우 意義있는 상관이 있었다. 이 相關은 年齡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특히 어른 條件에서는 相關이 없게 된다. 이 결과는 學齡前 兒童의 경우 歸因推定에 “착한 아이”에 관한 판단이 영향을 주나 年齡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이 감소함을 시사한다. 表 4의 결과로 미루어 學齡前 兒童이 乙 또는 丙을 착한 아이로 판단했을 경우 內的 歸因推定에서 甲을 택할 가능성이 적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內的 原因推定에서 乙 또는 丙을 擇한 경우 甲 主人公의 行動의 理由. 被驗兒童이 乙이나 丙 主人公이 어떤 行動을 정말로 더 하고싶어서 했다고 判斷한 경우 그는 甲 主人公의 行動의 原因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그러한 상황에서 被驗兒童들이 언급한 甲 主人

表 5. 年齡別로 본 甲 主人公의 行動의 理由(%)

理 由	年 齡	
	5세 (n=62)	7세 (n=28)
하고싶어서	51.6	60.7
자기 혼자해서(마음대로)	6.5	17.9
생각해서	24.2	—
좋아서	4.8	3.6
심심해서	6.5	7.2
재미있어서	1.6	7.2
기타	4.8	3.6
계	100.0	100.0

公의 行動의 理由를 될 수 있는 한 그들의 反應 그대로 묶어 分析한 結果가 表 5에 제시되어 있다.

表 5를 보면 甲 主人公의 行動에 대해 學齡前 兒童들이 언급한 全體理由중 약 52%가 “하고 싶어서”였고, 國民學校 1年生의 반응의 약 61%가 역시 같은 理由였다. “자기 혼자해서”와 “생각해서” 같은 理由를 여기에 포함시키면 甲 主人公의 行動에 대한 理由 중 약 70%는 그 內的으로 動機化되었다고 學齡前 兒童이나 國民學校 1年生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興味, 재미 등의 理由까지 포함시키면 被驗 兒童들이 言及한 理由의 95%는 甲 主人公의 行動의 原因이 內的임을 시사하고 있다. 要컨대, 이 結果는 體系的 節減效果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라도 被驗者들은 甲이 內的으로 動機化되어 행동한 것으로 判斷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特定 主人公이 착한 아이로 判斷된 理由. 質問 5에 대해 甲이 착하다고 생각한 理由로서 甲을 택한 學齡前 兒童의 89%, 國民學校 1年生과 3年生의 각 95%가 “자기 스스로” 또는 “생각해서 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乙 또는 丙이 착하다고 생각한 理由로서 學齡前 兒童의 89%, 國民學校 1年生과 3年生의 각 95%, 100%가 “시키는대로 해서” 또는 “말을 잘 들어서”를 언급하였다.

論 議

實驗 I의 主要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注目할 것은 甲主人公과 比較되는 主人公이 어떤 周邊人物의 命令을 받았느냐에 따라 節減效果가 다르게 나왔다는 사실이다. 學齡前 兒童들은 스스로 행동한 主人公이 친구가 시켜서 그 행동을 한 主人公과 짝지워진 條件에서, 國民學校 3年生 兒童들은 스스로 행동한 主人公이 어른이 시켜서 그 행동을 한 主人公과 짝지워진 條件에서 甲 主人公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甲이 內的으로 더 動機化되었다는 推定과 甲을 착한 아이로 보는 判斷間에는 正的 相關이 있었는데, 그 계수는 學齡前 集團에서 제일 컸다. 이 결과로 미루어 어른이나 친구가 시켜서

행동한 主人公을 착한 아이로 判斷할 경우 체계적으로 內的 原因을 推定하기가 힘들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乙이나 丙 主人公이 內的으로 더 動機化되었다고 判斷할 경우에도 學齡前 兒童들이 甲主人公의 行動의 原因으로 낸 理由들은 이 被驗者들이 甲이 內的 原因에 의해 행동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前記한 結果들을 綜合해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 비록 解釋段階에서 기존 因果세대로 主人公의 行動의 原因이 파악되었다 하더라도, 比較段階에서 시켜서 행동한 주인공이 “착한 아이”라는 判斷이 있게 되면 甲 대신 乙이나 丙을 擇하게 된다. 따라서 比較段階에서 節減原理를 사용하여 外的 原因이 있는 主人公의 內的 原因의 效果를 節減시키고, 再解釋할 때 “착한 아이”라는 判斷이 內的 原因인 性格을 시사하고 結果적으로 어른이 시켜서 행동한 主人公이 더 內的 動機化되었다고 推定하리라는 前記한 假說이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9세 兒童들의 경우 比較 主人公이 어른의 命令을 듣고 행동한 경우보다 친구의 말을 듣고 했을 때 內的 原因推定數가 적었다. 이 集團의 學生들은 친구의 말을 듣는 主人公이 인기있거나 좋은 아이로 성격판단을 하고 이 때문에 乙主人公의 內的 原因이 더 강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年齡과 周邊人物의 이러한 相互作用은 再次 검증될 필요가 있다.

實驗 I에서 또한 注目할 결과는 Smith(1975), Karniol과 Ross(1976)의 研究 結果와는 달리 周邊人物이 主人公에게 命令을 내리도록 이야기를 구성해 外的 原因의 略號化를 용이하게 하고, 이야기의 構造를 同--하게 했을 때 學齡前 兒童과 國民學校 1年生의 過半數가 體系的 節減效果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結果는 從前 研究와는 달리 學齡前 兒童들도 多充分 因果세대를 가지고 있고, 節減原理를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實驗 I의 結果 중 몇가지 問題가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解釋段階에 미치는 變因들의 效果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시사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周邊人物 變因이 比較段階에만 영향을 준다고 결론지으려면 증거

가 더 필요하다. 段階模型的 豫言처럼 理論적으로 타당하면서 또한 周邊人物 變因과 相互作用하지 않는 要因이 밝혀져야 한다.

다른 한 問題는 年齡×周邊人物과 目錄×年齡×周邊人物의 相互作用이다. 이 상호작용들은 兒童의 年齡에 따라 어떤 行動內容을 누가시키는지가 內的 原因推定에 영향을 줄을 시사한다. 이 結果들을 구체적으로 論議하기 전에 周邊人物의 效果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實驗者 變因이 다른 變因들과 三元 以上の 相互作用을 보였다는 점이다. 前記한 바와 같이 그 한 理由는 實驗者가 나이 어린 아동이 주의를 모으게 하고, 설명해 주고, 답을 받는 전반적인 기술 때문일지 모른다.

實 驗 II

前記한 바와 같이 實驗 I에서는 解釋段階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이 比較段階에 영향을 주는 要因과 함께 操作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변인물 변인이 비교단계에만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검토되지 않았다. 이 변인과 함께 해석단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조작되고 이 변인들의 관계가 구명되어야 한다.

解釋段階에 영향을 주는 한 變因으로 正當化(justification) 變因을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命令이나 큰 報償은 行動의 外的 原因으로서 次後的 態度나 行動變化가 그것에 기인한다고 正當化될 수 있다. Lepper와 Greene(1978)은 보상이나 명령이 행동의 外的 誘引(external incentive)으로서 충분히 분명하면 個人은 자기 행동을 어떤 課題에 대한 內的 興味에 귀인하기 보다는 강력한 外的 有關原因(external contingent cause), 예를 들면 보상이나 명령에 돌린다고 주장한다. 환인하면, 보상의 정도가 크거나 명령이 충분한 이유가 되는 條件에서 사람은 자기 행동이 이들 外的 要因들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추정한다. 반면, 보상의 크기가 작거나 外的 壓力이 分明하지 않는 條件에서 그 행동이 자신의 內在의 願望, 또는 動機에 비롯되었다고 추정한다. 前者를 高正當化(high justification), 後者를 低正當化라고 부른다(Lepper

& Greene, 1978).

兒童의 歸因에 관한 先行 研究들(예: Smith, 1975; Karniol & Ross, 1976)은 外的 原因의 正當化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主人公에게 父 또는 母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할 경우, 한 두 이야기를 除外하고는 父 또는 母가 선택을 망설이는 主人公에게 어떤 행동을 要求하는 充分한 理由를 대지 않고 명령을 내리거나 보상을 약속한다.

예를 들어보자. 한 주인공이 인형을 갖고 놀까, 장난감을 갖고 놀까 망설인다. 어머니가 人形을 갖고 놀면 과자를 주겠다고 약속해서 그 주인공이 인형을 갖고 논다는 내용이 있다. 이 이야기에서 어머니가 人形을 갖고 놀라고 명령하고 또 과자를 보상으로 약속하는 이유가 없다. 보상이나 명령이 외적 원인이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그 행동을 요구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아동이 기준 因果체마도 그것들을 分명한 外的 原因으로 해석하는데 곤란을 겪을지 모른다. 만약 어머니가 장난감은 동생이 갖고 놀터이니 人形을 갖고 놀고 또 그러면 과자를 償으로 주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위의 이야기에 첨가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보상을 받는 이유가 단순히 어머니의 命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보다 명백하며 해석단계에서 보상의 意味를 둘러싼 推論이 必要없고 보상이 外的 原因으로서 용이하게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이 條件과 比較해서, 두 行動 중 어느 것을 할까 망설이는 主人公에게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자. 이 이야기를 받은 아동은 여러 推論을 할 것이다. 그 주인공이 平素 그 행동을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미리 알고서 시켰는가? 어머니가 말 잘 듣는지 시험하려고 그 행동을 시켰는가? 어머니가 그 행동을 하라고 한 의도는 무엇일까? 命이나 報償을 주는 이유가 分明하지 않은 경우 解釋段階에서 여러 推論이 생기며, 그 結果에 따라서 또는 理解가 되는 程度에 따라서 命이나 報償이 外的 原因으로 分明히 해석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實驗Ⅱ의 한 目的은 解釋段階에 外的 原因의 正當化가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자극

이야기에 外的 原因을 正當化시키는 내용이 첨가된 條件(高正當化)은 그렇지 않은 條件(低正當化)에 비해 苛酷자로 하여금 外的 原因의 罰악 또는 이해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他 要因의 效果가 一定하다면, 解釋段階에서 外的 原因의 해석이 용이해지면 比較段階에서 絶對원리를 적용하기가 또한 용이할 것이다.

實驗Ⅱ의 두번째 目的은 周邊人物變因의 效果를 제검토하고, 또한 實驗Ⅰ에서 지적된 問題點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正當化 變因과 周邊人物變因간의 相互作用이 없을 경우 이것은 이들이 歸因過程의 각기 다른 段階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歸因에 대한 段階模型의 妥當性을 시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方 法

被驗者. 實驗Ⅱ에는 市內 西大門區에 위치한 D國民學校 1年生 48명과 麻浦區에 위치한 S유치원생 48명이 참가하였다. 유치원생의 平均年齡은 6年 2個月, 國民學校 1年生은 7年이었다. 각 年齡 集團에서 被驗 兒童의 半은 男子, 나머지는 女子였다. 이들의 父母의 社會經濟的 水準은 유치원과 학교의 所在위치로 미루어 모두 中下에 속한다고 推定되었다.

刺戟材料. 각 被驗者에게 8쌍의 이야기와 그 내용이 表現된 40장의 그림이 한 目錄으로 제시되었다. 이야기의 내용은 實驗Ⅰ에서 사용된 자극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高正當化 條件의 경우 命을 주는 理由를 첨가 하였다. 예를 들면 “짜장면—라면”의 이야기 경우 “철환이의 어머니가 라면을 동생이 먹어야 하니까 짜장면을 먹으라고 말하셨습니다”와 같이 어른이나 친구가 乙과 丙 主人公에게 명령을 주는 이유가 들어가 外的 原因을 正當化시켰다. 低正當化 條件에서는 實驗Ⅰ의 내용들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實驗Ⅰ에서와 마찬가지로 方法으로 두 目錄을 構成하였다. 여덟 행동 내용들 중 무선적으로 넷을 뽑아 甲과 乙 主人公이, 나머지는 甲과 丙 主人公이 짝지워지는 쌍을 만들었다. 이것이 목록Ⅰ이었고 目錄Ⅱ의 경우 그 반대가 되도록 하

였다. 일단 두 目錄이 구성되면 高正當化 條件의 경우 命令주는 이유만을 첨가하고, 低正當化 경우 原目錄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節次. 實驗Ⅱ를 3명의 教育心理專攻 大學院生과 大學生 1명이 進行하였다. 實驗 前, 各 年齡水準에서 48명의 被驗 兒童들을 선정하였다. 亂數表를 使用하여 이 兒童들을 네 實驗者에 無選 배정하였다. 그 다음 다시 亂數表를 사용해서 目錄Ⅰ—高正當化, 目錄Ⅱ—高正當化, 目錄Ⅰ—低正當化 및 目錄Ⅱ—低正當化的 네 條件에 被驗者들을 무선 配分하였다. 이런 節次를 밟아 決定된 兒童들을 대상으로 각 實驗者가 實驗Ⅰ에서와 同一한 절차로 實驗을 하였다.

한 被驗 아동이 8쌍의 이야기를 듣고 反應을 모두 하는데 걸리는 時間은 15분 내지 20분 정도이었다. 첫번에 설명해서 알아듣지 못하여 두 번 이상의 說明을 요한 兒童들은 國民學校 1年生이 18명으로 38%이었고, 유치원생은 10명으로 21%정도이었다.

設計. 實驗Ⅱ는 4(實驗者)×2(年齡)×2(目錄)×2(正當化)×2(周邊人物)의 Split-plot 要因設計를 사용하였다. 周邊人物을 除外한 모든 變因들은 被驗者間 變因들이었다.

資料處理. 被驗者의 選擇 反應과 自由應答은 實驗Ⅰ에서와 같은 方法으로 處理되었다. 質問 1과 3에 대한 反應點數들은 4(實驗者)×2(年齡)×2(目錄)×2(正當化)×2(周邊人物)의 Split-plot 要因變量 分析法으로 處理되었다.

結 果

內的 原因推定. 表 6은 內的 原因推定에서 被驗者들이 甲主人公을 택한 反應數를 目錄, 正當化, 年齡 및 周邊人物別로 정리한 것이다. 表 6에서 드러 나듯이 被驗者들은 低正當化 條件보다 高正當化 條件에서 甲主人公을 더 많이 택하였다, $F(1, 64)=0.50$, $MSe=1.11$. 그러나 豫想과는 달리 年齡, $F(1, 64)=3.95$, $MSe=1.11$, 과 周邊人物 變因의 主效果가 없었다, $F(1, 64)=.42$, $MSe=.31$. 目錄의 主效果가 없었던 반면, $F(1, 64)=.04$, $MSe=1.11$, 實驗者의 主效果가 있었다, $F(3, 64)=9.36$, $MSe=1.11$. 이 結果는 實驗者 4명중 2명의 被驗者들이 다른 實驗者의 被驗者들에 비해 內的 原因推定을 다소 적게한 데 기인한다.

變因간의 相互作用으로는 目錄×周邊人物이 유의하였다, $F(1, 64)=7.42$, $MSe=.31$. 이것은 被驗 兒童들은 周邊人物이 어른인 경우는 目錄Ⅰ에서, 親舊의 경우는 目錄Ⅱ에서 內的 原因推定을 더 많이 한데 起因한다. 그러나 正當化×周邊人物간에는 $F(1, 64)=3.77$, $MSe=.31$ 로 5%수준에도 못 미치는 相互作用 效果를 보였다. 前記한 相互作用 以外에 年齡×實驗者×正當化, $F(2, 64)=6.61$, $MSe=1.11$, 實驗者×正當化×目錄×周邊人物, $F(3, 64)=4.55$, $MSe=.31$ 이 각기 有意하였다. 이 相互作用들은 모두 實驗者

表 6. 年齡, 目錄, 周邊人物 및 正當化別 甲主人公을 擇한 平均反應數(괄호안은 SD)

正當化	周邊人物	目 錄 Ⅰ		目 錄 Ⅱ	
		6세	7세	6세	7세
高	어른	3.92(.29)	3.75(.62)	3.25(1.29)	3.58(.67)
	친구	3.83(.39)	3.25(.97)	3.42(1.00)	3.17(.83)
低	어른	3.25(1.06)	2.83(1.11)	3.17(1.34)	2.75(1.60)
	친구	3.17(1.03)	2.42(1.38)	3.50(1.00)	3.33(.65)

表 7. 年齡과 周邊人物別 세 類型的 兒童(%)

年 齡	어 른			친 구		
	體系的節減	非體系的節減	同 化	體系的節減	非體系的節減	同 化
6세 (n=48)	81.3	16.7	2.1	85.4	14.6	—
7세 (n=48)	79.2	16.7	4.2	77.1	20.8	2.1

變因이 他變因과 關係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論議에서 이 문제를 言及하기로 하겠다.

節減效果. 被驗 兒童들의 內的 原因推定 點數를 근거로 實驗Ⅰ에서 사용한 기준에 따라 그들을 분류하였다. 實驗Ⅰ과 比較하기 위해 年齡과 周邊人物別로 세 類型의 兒童들을 정리한 結果가 表 7에 提示되어있다. 表 7을 보면 각 年齡水準에서 약 80%의 아동들이 體系的 節減效果를 보이고 있으며, 어린 條件에서 보다 親舊 條件에서 6세 아동의 경우 節減效果를 보이는 아동이 다소 많다. 表 2에서 나타난 結果와 表 7의 結果들은 이 점에서 비슷하다. 表 7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正當化의 水準別로 分析해 보았더니 低正當化보다 高正當化에서 體系的 節減效果를 보인 兒童들이 훨씬 많았다.

“착한 아이”의 判斷. 두 主人公 중 甲을 착한 아이로 선택한 反應을 分析하였다. 甲을 택한 반응은 周邊人物이 어른인 조건보다 친구인 조건에서 훨씬 더 많았다, $F(1, 64) = 26.86$, $MSe = .63$. 이 結果는 實驗Ⅰ의 結果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他 變因의 主效果와 그들간의 相互作用은 統計的으로 모두 有意하지 못하였다.

內的 原因推定과 “착한 아이”判斷간의 關係. 表 8은 甲이 內的으로 더 動機化되었다는 判斷과 또한 그가 더 착하다는 判斷간의 相關을 정리한 結果이다. 學齡前 兒童의 경우 周邊人物에 상관없이 두 判斷간에 正的 相關이 있는 反面, 國民學校 1年生의 경우 그렇지 않다.

內的 原因推定에서 乙 또는 丙을 擇한 경우 甲主人公의 行動의 理由. 實驗Ⅰ에서와 같은 方法으로 이 경우 甲主人公의 行動의 理由로서 被驗者들이 言及한 反應들을 정리한 結果로 表 9에 제시되어 있다. 이 表를 보면 學齡前 兒童과 國民學校 1年生들의 각 年齡水準에서 언급된 全體

表 8. 年齡과 周邊人物別 內的 原因推定點數와 “착한 아이” 判斷點數간의 相關係數

周邊人物	年 齡	
	6세	7세
어른 ($df=46$)	.28*	.17
친구 ($df=46$)	.28*	.17

* $P < .05$, 일방검증.

表 9. 年齡別로 본 甲主人公의 行動의 理由(%)

理 由	年 齡	
	6세 ($n=53$)	7세 ($n=82$)
하고 싶어서	39.6	24.4
생각해서	13.2	28.0
좋아서	15.1	9.8
심심해서	13.2	4.8
그냥	3.8	11.0
배고파서	5.7	2.0
다른애가 하나까	—	11.0
기타	9.4	8.5
계	100.0	100.0

理由 중 약 80%가 甲이 內的 原因때문에 행동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結果는 아동들이 비록 乙이나 丙이 內的으로 더 動機化되었다고 判斷하긴 했지만 甲 역시 內的으로 動機化되어 行動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特定 主人公이 착한 아이로 判斷된 理由. 質問 5에 대한 應答을 分析하였다. 甲이 착하다고 생각한 理由로서 유치원 아동의 84%, 國民學校 1年生 兒童의 74%는 “자기 스스로 혼자 생각해서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乙 또는 丙이 착하다고 생각한 理由로서 유치원의 84%와 國民學校 1年生 兒童의 80%는 “말을 잘 들어서” 또는 “시키는 대로 해서”라는 내용의 이유를 들었다.

論 議

實驗Ⅱ에서 밝혀진 結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兒童들은 周邊人物이 主人公에게 어떤 行動을 하도록 시킬 때 그 理由를 分明히 할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節減效果를 더 많이 보였다. 따라서 低正當化條件보다 高正當化條件에서 外的 原因이 더 용이하게 解釋되어 시킴을 받은 主人公의 경우 內的 原因의 效果가 절감될 것이라는 實驗Ⅱ의 假說이 입증되었다.

周邊人物 變因은 目錄 變因과 有意한 相互作用을 보였다. 이 結果는 主人公이 하는 行動內容과 그것을 시키는 周邊人物의 종류에 따라 內的 原因推定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이 相互作用은

實驗Ⅰ에서도 관찰되었다. 그러나 實驗Ⅰ에서와 같은 年齡×周邊人物의 相互作用은 없었다. 親舊(peer)의 壓力을 많이 의식하는 高學年, 즉 3學年生이 實驗Ⅱ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相互作用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

實驗Ⅰ의 結果 중 특기할 것은 正當化와 周邊人物간의 相互作用이 有意하지 않았다는 결과이다. 이것은 이 두 要因이 歸因過程의 각 다른 段階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따라서 解釋, 比較, 選擇의 諸 段階를 設定한 段階模型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간주된다.

“착한 아이”의 판단, 이 判斷과 內的 原因推定の 관계, 乙 또는 丙을 內的 原因推定에서 택했을 때 言及된 甲 主人公의 行動의 理由 등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實驗Ⅰ의 諸 結果와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들을 綜合해 보면, 比較段階에서 시켜서 행동한 主人公이 착한 아이라고 判斷이 그 兒童의 內的 原因의 效果를 절감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본 연구의 假說이 입증된다고 하겠다.

實驗Ⅱ에서는 實驗Ⅰ에서보다 다소 높은 比率로 學齡前 兒童들이 體系的 節減效果를 보였다. 따라서 이 두 實驗을 通해, 過半數 以上の 學齡前 兒童들이 Smith(1975)의 實驗事態에서 節減效果를 보인다는 結論을 내릴 수 있다.

實驗Ⅰ과는 달리 實驗Ⅱ에서는 年齡의 主效果가 관찰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國民學校 1年生들이 유치원생들에 비해 약간 낮은 體系的 節減效果를 보였다. 實驗Ⅱ가 완료된 후 밝혀진 사실이 이 결과를 설명해 줄 것으로 보인다. 즉 實驗Ⅱ의 유치원 被驗者들은 社會性 發達을 爲한 놀이 프로그램을 1년간 받아온 반면, 國民學校 1年生들은 그렇지 못하고, 또 後者의 社會經濟的 水準이 前者의 그것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연령의 主效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學齡前 兒童의 社會經濟的 水準 또는 그들이 받는 프로그램의 種類와 歸因過程의 發達간의 관계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實驗Ⅱ의 한 問題는 實驗者 變因의 主效果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實驗者들에 대한 事

前訓練 및 統制가 부족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兒童 특히 學齡前 兒童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그들이 알기 쉬운 말로 자극 내용을 설명해 주며, 여러 단서들로 아동이 자극을 이해한 정도를 파악하는 등의 기술을 위한 체계적 훈련이 必要하다.

實 驗 III

金正午와 朴永信(1980)의 연구에서 學齡前 兒童들이 報償의 豫想有無에 따라 主人公의 行動原因을 다르게 推定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歸因過程에 대한 段階模型은 解釋段階에서 內·外的 原因으로 主人公의 行動을 이해하는 容易性에 따라 節減效果가 다르게 관찰됨을 예언한다. 報償의 解釋이 쉬운 조건이 어려운 조건에 비해 더 많은 節減效果를 보일 것이다.

金正午와 朴永信의 實驗結果를 바탕으로 報償解釋의 難易度를 두 水準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難條件은 被驗者에게 行動前報償을 약속받고 行動後報償을 받은 主人公과 보상은 예상하지 못하고 같은 행동을 한 後에 同一한 報償을 받은 主人公 中 그 행동에 內的 動機가 더 강한 사람을 택하도록 요구한다. 易條件의 경우 被驗者는 行動前에 報償을 약속받고 행동한 後報償을 받은 主人公과 같은 행동을 스스로 하고 아무런 報償을 받지 못한 主人公을 比較한다.

前記한 難條件에서는 報償의 豫想有無를 고려해서 主人公의 行動原因이 理解되어야 한다. 易條件에서는 報償의 豫想有無에 구애여 주목할 필요가 없고 報償을 받은 與否만으로 두 主人公의 각 行動을 理解하면 된다. 易條件에 비해서 難條件의 경우 두 主人公이 모두 報償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內的 動機의 推定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主人公이 報償을 豫想하고 行動했는지의 與否를 中心으로 그들의 행동을 해석해야 한다. 이처럼 解釋段階에서 決定的으로 重要な 情報을 찾고, 또 그 意味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難解釋條件이 易解釋條件보다 결과적으로 節減效果를 덜 보일 것이다.

報償解釋의 難易度로 解釋段階의 성질을 밝히는 것 以外에 實驗Ⅲ는 두 目的을 가지고 있다.

그 첫째는 金正午와 朴永信, 그리고 本研究의 實驗Ⅰ과 Ⅱ가 6세 아동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5세 아동들의 귀인과정이 실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實驗Ⅲ에서는 年齡을 낮추어 5세 兒童으로 구성된 유아반을 被驗集團에 포함시켜 그들의 歸因過程을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의 目的은 實驗Ⅰ과 Ⅱ가 같은 刺戟材料들을 사용했으므로 結果의 一般化 문제가 있다. 다른 行動內容의 이야기들을 構成해서 두 實驗에서 나타난 節減效果가 特定刺戟이야기에 限定된 結果가 아님을 밝힐 필요가 있다. 實驗Ⅲ에서도 過半數 以上の 學齡前 兒童들이 體系的 節減效果를 보인다면 實驗Ⅰ과 Ⅱ의 結果는 特定刺戟이야기와는 無關한 것으로 간주된다.

方 法

被驗者. 實驗Ⅲ에 참가한 兒童들은 시내 江南區 所在 W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반 아동 32명과 유치반 아동 32명 총 64명이었다. 유아반의 平均 年齡은 5년 5개월, 유치반의 平均 年齡은 6년 6개월이었다. 각 年齡水準에서 男·女 兒童의 數를 약 半씩 되도록 표집하였다. 實驗Ⅲ 아동들의 父母의 社會經濟的 水準은 유치원의 위치와 父母의 職業을 고려할 때 모두 中上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刺戟材料. 實驗Ⅲ에는 6쌍의 이야기가 사용되었다. 한쌍의 이야기에서 한 주인공은 報償을 약속받고 어떤 行動을 한 後 그 보상을 받는다. 다른 주인공은 그 行動을 스스로 한다. 難解釋條件의 경우 스스로 行動한 주인공이 報償을約束받고 행동한 주인공과 同一한 보상을 받는다. 易解釋條件에서 스스로 행동한 주인공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는다.

難解釋條件의 경우 자극 이야기들의 例는 다음과 같다. (甲) 영수는 집에 있습니다. 영수는 TV를 볼까 동화책을 볼까 생각했습니다. 영수는 동화책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신 어머니께서는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돈 500원을 주셨습니다. (乙) 철수는 집에 있습니다. 철수는 TV를 볼까 동화책을 볼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表 10. 實驗Ⅲ에 사용된 자극이야기의 선택행동과 보상내용

이야기 번 호	選擇行動	報 償
1 TV—동화책		500원
2 인형 갖고 놀기—그림그리기		과자
3 흙장난—풀넉기		장난감 땡크
4 그림책 정리—꽃에 물주기		칭찬, 머리스다듬기
5 손씻기—세수하기		아이스크림
6 방청소—등생 돌보기		동화책 사주기

서 철수에게 동화책을 보면 돈 500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수는 동화책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신 어머니께서는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돈 500원을 주셨습니다.

위의 이야기 쌍과 比較條件인 易解釋條件의 경우 乙주인공의 이야기와 甲이야기에서 보상에 관한 내용을 뺀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報償을 주는 사람은 모든 이야기에서 어머니로 통일하였다.

實驗Ⅲ에 사용된 여섯 이야기 쌍들의 내용을 정리한 것은 表 10에 제시되어 있다. 세 쌍의 이야기에서 主人公들이 모두 남자아이이며, 나머지 쌍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여자아이였다. 각 이야기들과 함께 그 내용을 잘 나타낸 2~4장의 그림을 마련하였다.

節次. 實驗Ⅲ에는 教育心理學을 專攻하는 大學院生 2명이 實驗者로 참가하였다. 각 年齡水準에서 가장 나이 어린 兒童 4명씩을 한 구획으로 만든 다음 이 4명씩을 2(實驗者)×2(解釋의 難易度)의 네 條件에 亂數表를 사용하여 배정하였다.

兒童들이 배당된 實驗者에게 오면 각 實驗者는 그 兒童에게 難 또는 易解釋條件에 따라 여섯 쌍의 이야기를 제시하였다. 6쌍의 이야기들은 실험전에 무선으로 섞여졌고, 한 쌍내에서도 甲 또는 乙 主人公을 섞어 순서효과를 없앴다.

實驗Ⅲ의 節次는 實驗Ⅰ, Ⅱ와 매우 유사한데, 여기서는 內的 原因推定만을 要求하였다. 나머지 實驗 節次들은 모두 實驗Ⅰ과 같았다. 한 아동에게 6쌍의 이야기들을 그림과 함께 제시하고 각 쌍의 자극이야기에 대한 선택반응을

받는데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設計. 實驗Ⅲ은 2(實驗者)×2(年齡)×2(難易度)의 요인 설계를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자들은 被驗者간으로 操作되었다.

資料處理. 앞의 實驗들과 같은 방법으로 피험자의 선택반응이 처리되었다. 內的 歸因의 총점은 0~6점까지이었다. 被驗者가 甲을 선택한 총점에 2(實驗者)×2(年齡)×2(難易度)의 변량 분석을 하였다.

結果 및 論議

內的 原因推定. 被驗者가 甲을 택한 反應을 條件別로 정리한 結果가 表 11에 제시되어 있다. 이 表에서 드러나듯이 유치반 아동들이 유아반 아동들에 비해 甲을 더 많이 택했으며, $F(1, 56) = 23.13$, $MSe = 1.37$, 兒童들은 報償 解釋이 어려운 條件보다 쉬운 條件에서 節減效果를 더 많이 보였다, $F(1, 56) = 10.98$, $MSe = 1.37$. 實驗者의 主效果는 없었으며, $F(1, 56) = .56$, $MSe = 1.37$, 이 變因과 他 變因과의 相互作用도 有意하지 않았다.

節減效果. 여섯번 선택反應 중에서 4번 이상 甲을 택한 兒童들은 體系的 節減效果를 보인 아동으로 2~3번 甲을 택한 兒童들은 非體系的 節減效果를 보인 兒童들로, 甲을 전혀 택하지 않거나 1번 밖에 택하지 않은 아동들은 內的 原因推定에서 同化原理를 사용한 아동들로 간주하였다. 表 12는 年齡과 解釋條件別 세 類型의 아동들은

분류한 결과이다. 表 12를 보면 5세 兒童의 半數 程度는 解釋條件에 상관없이 體系的 節減效果를 보였다. 6세 兒童들은 難條件에서는 56%, 易條件에서는 90% 이상이 體系的 節減效果를 보였다.

實驗Ⅲ의 結果는 豫言된대로의 패턴을 보였다. 즉 報償의 解釋이 어려운 條件보다 쉬운 條件에서 兒童들은 節減效果를 더 많이 보였다. 이 結果는 解釋段階에서 豫想된 報償의 與否를 注目해야 할 때 기존 因果세마를 적용해서 主人公의 行動을 理解하기가 힘들음을 시사한다.

報償 解釋의 難易도가 內的 歸因에 미치는 영향은 實驗Ⅱ에서 命令의 正當化 程度가 內的 歸因에 미치는 영향과 매우 유사하다. 이 결과들을 종합하면 解釋段階에서 報償이나 命令이 外的 原因으로 理解될 때 充分한 情報가 있을수록 이 段階의 處理가 容易하게 進行되고, 그 아웃풋(output)에 節減原理를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實驗Ⅲ에서는 實驗者 變因의 主效果나 이 변인과 他變因간의 相互作用 效果가 나오지 않았다. 實驗者의 訓練에 유의하긴 했지만 이 결과가 被驗者들을 年齡別로 순서를 매긴 다음 네명씩 單位로 짝라 무선배치하여 한 年齡 水準內에서 統制를 한데 起因할 가능성이 있다. 그 까닭은 實驗Ⅰ과 Ⅱ에서는 구획 무선배정(block randomization)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實驗Ⅲ에서 易解釋條件의 경우 過半數의 5세 아동들이 體系的 節減效果를 보였고, 實驗Ⅰ과

表 11. 實驗者, 年齡 및 解釋難易도에 따라 甲을 택한 平均 反應數(SD)

			難 解 釋		易 解 釋	
			5세	6세	5세	6세
실	험	자 1	3.13(1.05)	4.25(.97)	4.63(1.41)	5.63(.49)
실	험	자 2	3.38(.99)	3.63(1.32)	4.13(1.27)	5.63(.99)

表 12. 年齡과 解釋難易度別 세 類型의 兒童(%)

年 齡	難 解 釋			易 解 釋		
	體系的節減	非體系的節減	同 化	體系的節減	非體系的節減	同 化
5세 (n=32)	44	56	—	63	31	6
6세 (n=32)	56	44	—	94	6	—

Ⅱ와는 다른 刺激內容들을 사용했는데도 두 年齡水準의 學齡前 兒童의 過半數以上이 體系的 節減效果를 보였다. 따라서 實驗Ⅰ과 Ⅱ에서 過半數 以上の 學齡前 兒童들이 體系的 節減效果를 보인 것은 刺激目錄의 特性때문이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全 體 論 議

본 연구에서 歸因過程에 대한 段階模型이 제기되었다. 이 모형은 解釋 比較 및 選擇의 세 단계를 거쳐 他人의 행동에 대한 原因이 推定됨을 가정하였다. 段階模型의 豫言들을 검증하기 위해 實驗이 遂行되었다. 解釋과 比較의 두 단계에 자기 다른 要因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豫言은 實驗Ⅱ에서 周邊人物과 正當化의 相互作用效果가 없는 결과로 입증되었다. 比較段階에서 他人의 性格判斷이 節減原理에 依한 再解釋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豫言은 實驗Ⅰ과 Ⅱ에서 지지될 받았다.

세 實驗의 結果들은 解釋段階에는 命令의 正當化와 報償解釋의 難易도가, 比較段階에는 周邊人物의 要因들이 자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歸因의 세번째 段階인 選擇段階에 영향을 미치는 變因들이 직접 操作되지 않았다. 選擇段階에서도 注意散漫, 質問內容의 理解에 있어서 不正確性 등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관계된 결과로서는 內的歸因에서 4번의 選擇反應 중 세 번은 甲을 택하고 1번은 乙이나 丙을 택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해당 兒童이 節減原理을 體系的으로 사용하여 두 主人公을 비교한 후 原因을 再解釋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質問이 要求하는 主人公을 택할 때, 순간적인 意識집중의 결여때문에 초래된 비교내용의 망각 또는 質問內容을 正確히 把握하지 못해서 일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學齡前 兒童의 경우 實驗遂行 중 주의 집중의 산만이 많이 관찰되었는데 非體系的 節減效果를 보인 아동들 중에는 選擇段階에서의 이러한 諸要因에 영향을 받은 아동들도 있을 것이다. 이 가능성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選擇段階에 영향을 주는 變因을 직접 操作해서 검토되

어야 한다.

본 연구의 注目할 다른 결과로는 過半數 以上の 學齡前 兒童들이 體系的 節減效果를 보였다는 사실이다(實驗Ⅰ, Ⅱ 및 Ⅲ). 이 結果는 특정 자극목록에 구애됨이 없이 관찰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자극이야기의 심층구조를 동일하게 하고, 주인공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등의 통제때문에 Smith(1975)나 Karnial과 Ross(1976)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이야기의 심층구조를 복잡하게 만들면 해석 단계에 있어서 정보처리 부담이 늘어나서 兒童들, 특히 學齡前 兒童들이 낮은 節減效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前記한 段階模型의 對案으로 Kelley의 세마유형(schema type)을 들 수 있다. Kelley에 의하면 어린 兒童들이 節減效果를 보이지 못하는 한 理由는 그들이 多充分 因果세마와 같은 복잡한 세마(complex schema)를 사용하기 보다는 “父母의 말을 듣는 아이는 착한 아이”라는 固定觀念에 의해, 즉 單純因果세마(simple causal schema)를 사용한다 起因한다. 즉 어떤 세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節減效果가 관찰될 여부가 결정된다는 생각이다. 앞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被驗者가 시켜서 한 主人公 또는 보상을 約束받고 행동한 主人公이 內的 動機가 더 强하다고 判斷했을 때 그들은 甲 主人公이 內的 原因에 依해 行動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만약 學齡前 兒童들이 복잡한 因果세마 대신 單純 因果세마를 選好하고 이에 따라 內的 歸因을 했다면 甲 主人公이 內的 原因에 의해 행동했다고 推定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單純因果세마의 사용은 多充分 因果세마에 비해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認知的 부담이 덜 요구되므로 일단 兒童이 이를 사용하면 일관되게 사용해서 귀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實驗Ⅰ, Ⅱ 및 Ⅲ에서 同化效果 보다는 非體系的 節減效果를 보인 아동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이 예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前記한 사실과 논지에 비추어 Kelley의 세마 유형론은 學齡前 兒童의 歸因過程을 설명키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단계모형과 유형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실증적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實驗Ⅰ과 Ⅱ에서 밝혀진 한 결과는 內的 歸因과 착한 아이 판단간의 正的 相關이 年齡의 증가에 따라 弱化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行動의 原因推定과 착한 아이의 판단이 年齡의 증가와 더불어 獨立의이게됨을 시사한다. 또한 學齡前 兒童의 경우 남이 시켜서 행동한 他人을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內的 歸因에 否定的 影響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미진한 점으로 몇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周邊人物 變因이 年齡 또는 目錄과 相互作用을 나타냈는데, 그 原因들이 후속 실험에서 체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兒童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행동을 누가 시켜서 주도했다는 個個 兒童의 과거 경험이 위의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兒童이 보통 경험하는 행동내용과 周邊人物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자극이야기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實驗Ⅲ에서는 實驗者의 效果가 없었으나, 實驗Ⅰ과 Ⅱ에서는 그 主效果 또는 他變因과의 三元 相互作用이 있었다. 實驗者 문제는 특히 學齡前 兒童을 대상으로 할 때 유의해야 할 문제이다. 歸因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의 경우에도 學齡前 兒童을 대상으로 할 때 그리고 여러명의 실험자를 사용할 때는 實驗者 訓練의 정도를 높이면서 實驗Ⅲ에서와 같이 구획 무선배정법을 사용하여 각 연령 수준에서 몇달 차이에 기인하는 個人差를 줄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段階模型은 先行 研究結果들의 설명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Karniol과 Ross의 연구에서 명령조건 보다는 보상조건에서 學齡前 兒童들이 體系的 節減效果를 덜 보였다. 段階模型에 의하면 解釋段階에서 報償이 外的 原因으로 命令에 비해 용이하게 해석되지 않고 또 比較段階에서 “償받은 아이는 착한 아이”라는 判斷때문에 報償條件이 命令條件보다 節減效果를 적게 보였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段階模型을 더 具體化시키고, 각 段階에서 일어나는 過程들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 金正午·朴永信. 兒童의 社會的 認知에서 歸因過程의 發達(Ⅰ). 韓國心理學會誌. 1980, 3, 38-50.
- Cha, Jae-Ho. Clarity of the focal stimulus cue and the mediation of two opposing social perceptual effec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71 Cited in E. E. Jones, D. E. Kanouse, H. H. Kelley, R. E. Nisbett, S. Valins, & B. Weiner.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1972.
- Dollinger, S. J., & Thelen, M. H. Overjustification and children's intrinsic motivation: comparative effects of four rewar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8, 36, 1259-1269.
- Karniol, R., & Ross, M. The development of causal attribution in social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6, 34, 455-464.
- Karniol, R., & Ross, M. Children's use of causal attribution schema and the inference of manipulative intentions. *Child Development*, 1979, 50, 463-468.
- Kelley, H. H. *Causal schemata and the attribution processes*. New York: General Learning Press, 1972.
- Kelley, H. H. The process of causal attribution. *American Psychologist*, 1973, 28, 107-128.
- Kelley, H. H., & Michela, J. L.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1980, 31, 457-501.
- Lepper, M. R., & Greene, D. Overjustification research and beyond: Toward a means-ends analysis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M. R. Lepper and D. Greene (Eds.), *The hidden costs of reward*. Hillsdale, N.J.: Erlbaum, 1978.

- Lepper, M. R., Greene, D., & Nisbett, R. E. Understanding children's interest with extrinsic reward: A test of the overjustification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3, 28, 128-137.
- Smith, C. M. Children's use of the multiple sufficient causal schema in social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5, 32, 737-747.
- Sternberg, S. Memory scanning: mental processes revealed by reaction time experiments. *American Scientists*, 1969, 57, 421-457.

韓國心理學會誌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981, Vol. 3, No. 2, 100-117

Development of the Attribution Processes in Children's Social Cognition(II): A Test of a Stage Model

Jung-Oh Kim and Taely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Ewha Women's University

A stage model was developed as a conceptual framework to explore limitations in the kindergartners' causal attribution. It was assumed in this model that a prevailing cause of a particular behavior is inferred through a series of stages: Interpretation of relevant information, comparison of actors with different causes, and selection of a particular actor. Predictions generated from this model were tested in the Smith paradigm (1975), using kindergartners and primary school children. Results obtained, in particular, patterns of interaction among variables indicated that perception of reward and justification of order influence the interpretation stage whereas type of a person who suggests an actor to do a certain thing affects the comparison stage. A decision made as to who is really a good actor (child) also seems to affect the latter stage. Furthermore, more than 70% of the kindergartners employed in the present study showed the discounting effect. Contrary to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only less than 5% of the kindergartners revealed the assimilation effect. These findings were obtained in three experiments with different stimulus stories as well as child subjects differing in socioeconomic backgrounds.